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입당 불허

여권發 정계개편설 '급제동'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복당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골똥거렸던 여권발 정계개편설에 급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판단과 달리 범진보연연대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사그라지는 불씨가 살아날지 귀

산 하는 것은 절대 안 할 것'이라며 썩기를 보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입·복당을 하든 안하든 저희 당으로는 부담이다.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평화당은 강력하게 (두 의원을) 입당시키면 안 된다고 하고 또 두 의원은 계속 입·복당에 강한 의지를 밝히셔 곤혹스러웠다"면서 "일단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중진의원들은 당에 '친문 순혈주의'가 팽배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박영선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부터 민주당은 순혈주의를 고수해야 할 것인지 개방과 포용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축적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순혈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개방과 포용에 늘 무릎을 꿇었다"면서 "로마가 천년 지속될 수 있었던 힘도 곧 개방과 포용 그리고 공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용호,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불허한 근거가 순혈주의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보수정당이 한국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결집하는데 반문연대에 맞서기 위해 범진보연의 개혁연전을 정립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지도부의 판단에 반발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우 의원은 또 범여권과의 개혁연대를 위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상산을 정의당에 양보하고, 민주평화당과 개혁입법에 대한 MOU(양해각서)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당초 입당 무난 관측·군소정당 의원들 이탈 도미노

이해찬 "인위적인 이합집산 없어"…정계개편 일축

우상호-박영선 "순혈주의 우려…개방과 포용해야"

추가 주목된다.

당초 호남 출신의 손·이 의원이 입·복당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위원장과 대표적인 친문(親文)으로 꼽히는 최재성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당 불가를 주장하면서 기류가 변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13일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의원의 입당을 불허하기로 했다.

에서 의석수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거나 한편으로는 이들의 영입을 위해 공을 들이던 민주평화당과 불편한 관계가 될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면서 진보 진영의 정계개편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14일 원내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당으로 오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인위적으로 합당하거나 이합집

황교안, 한국당 입당... "나라가 총체적 난국"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는 15일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한국당이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라며 "평화가 왔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며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이제 한국당이 국



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한다"라며 "통합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여야 4당, 한국당 5·18 조사위원 추천 '비판'

자유한국당이 4개월여 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을 추천한 가운데, 여야 4당은 추천 인사의 면면을 놓고 전날에 이어 15일 비판의 목소리를 일제히 쏟아냈다.

김태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선정한 진상조사위원들은 반성 없는 보수, 부끄러운 민낯 그 자체"라며 "이런 사람들을 내놓으려고 구성을 4개월이나 미뤄온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에 대한 위원 추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사는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법원과 국방부에 의해 확인되거나 밝혀진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과정을 부인했던 인물"이라며 "차기환 전 판사도 세월호특별조사위원을 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방해에 대해 '침대축구' 할 요량이 아니면 3인 추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을 추천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추천권을 반납하라"고도 했다.

이당도 한국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지난 4개월간 질질 끌며 위원 구성을 방해했다면 앞으로는 이 위원들로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없도록 할 것이 우려된다"며 "후안무치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교했다.

이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은 정의대의 인사검증 후 최종 결론난다"면서 "정의대는 추천위원 검증을 조속히 진행해야 하며, 자격요건을 엄중히 따져 (조사위원)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념의 문제도, 당파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자행한 국가 폭력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라며 "문제는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놓고 드러낸 한국당의 음흉한 속내"라고 질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한국당에는 사람이 없다. 최소한의 상식과 인성, 정의감만 가져도 총탄한테 인간의 기초 덕목을 갖춘 3인이 없어 4개월간 추천하지 못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은 정당임을 시인하고 이쯤에서 해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백서 적(敵) 개념 변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 "서울 불바다" 발언
1995~2000년	'북한군은 주적' 표현 사용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주적' 규정 논란
2004년	'북한군은 주적' 삭제,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
2010년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명시
2018년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삭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

자료: 국방부

2018국방백서 발간... '북한군은 적' 삭제

군비통제 청사진...전략권 조기전환 강조·대체복무제 소개

우리 군의 국방정책 현수조를 보여주는 '2018 국방백서'가 15일 발간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8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또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나눠 담았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 주적 개념을 삭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달라진 여내 안보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010년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지만, 올해 백서에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군비통제 추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전방위 안

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타격체계' (전략적타격과 압도적 대응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재정립했다.

이 밖에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 등도 소개했다.

또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방 개혁2.0'의 추진 기초를 소개하고, 세부내용은 각 장·절에 추진 내용과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포함한 군부대구조 개편, 상비병력 50만 시대를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 대체복무제 등 장병 인권 보호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국방백서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방위력 증강과 함께,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도 강조했다.

한편 국방백서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현안은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

또 일반부록은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와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를 추가했다.

뉴스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